컨퍼런스 결과 보고서

이름 : 공개SW 컨퍼런스 2018(무료행사)

일시 : 2018.11.29(목) (09:30 ~ 17:00)

장소 : 삼성역 코엑스

목적

* 각 현업에서의 빅 데이터 수집/처리/활용 방법론 벤치마킹을 통한 DI팀 내부 데이터 처리 업무로의 도입 검토
* 빅데이터 컨설팅 사례별 Lessons & Learned 공유를 통해, DI팀 태깅/분석 서비스의 현황/문제점 및 개선 아이디어 검토

참가세션

**<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전력산업분야 오픈소스 도입 및 활용사례> 한국전력공사 김종명 부장**

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 => 플랫폼 중심 체제로 변환

한전 정보시스템은 Oracle 라이선스 구입비용 150억, 년간 20억 유지보수 소비  
- 오라클은 법무팀이 2/3, 심심하면 찾아오는 라이선스 규칙 위배 소송, 추가 비용 요구  
-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 (3개 송변전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 사용 중)

사례 (Open-GIS : 지리정보 기반으로 전력 설비 및 계통 운영을 관리하는 솔루션)  
- 기존에 사용하던 Open-GIS의 경우 특정 브라우져에서만 구동 / active X 기반  
-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추가 기능 구현 및 다수 브라우저 지원 / 나아가 GIS S/W 플랫폼을 개발 후 상표 등록 후 서비스화 예정

향후 한전이 생각하는 방향  
- 정부기관에서도 오픈소스 전담 조직이 필요하지만 경영진 및 조직내 부정적 인식 극복 필요

## 한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소개 발표   
정부기관의 특성상 경력직 대부분은 관리자 역할을 수행   
🡺 개발 전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담 조직을 만들더라도 오픈소스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됨

라이선스 정책 모호.다양.복잡(법적분쟁 주의)   
🡺 서비스에 사용되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검토가 반드시 필요 ( NIPA에서 해당 부분 전담 ) NIPA를 통한 질의응답 가능

**<오픈소스에 의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> 한국레드햇 황인찬 부사장**

Digital Transformation(이하 DT) : 기업에서 각종 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과정으로 중요한 화두이다.  
이를 전담하는 CDO의 필요성 강조 / 이미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도 존재

DT를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바라보는 문제 지적  
- 하지만 기업의 조직/문화가 먼저 변화하고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.   
- OS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기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문화. 해당 사상에 기반으로 한 조직이 필요

OS는 기존의 틀을 파괴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  
- 따로 떨어져 별개로 움직이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?  
- 소수의 전문가 X =>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내야함  
- 기업 내 외부 아니라 고객, 협력사 그리고 경쟁사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.

OS를 바탕으로 어떻게 DT을 할 것 인가?  
- 공유, 공개, 참여 / 모든 프로세스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공개  
- 모든 이슈를 표준화하고 공개 후에 서로 참여를 이끌어야 함  
- 즉, OS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조직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.

OS를 바라보는 시각  
- TOP DOWN( 예산과 경영진의 파워가 필요) => 이는 곧 회사 의사결정 구조라고 할 수 있다.  
- OS는 Bottom up 방식을 지향, start small, 일단 시작 🡺 성공 사례 공유 🡺 변화의 바람  
- 레드헷이 이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노력   
어떤 기반의 회사를 인수 / 어떤 커뮤니티와 연계 => 어떻게 같이 성장 할 것인가?  
- 의사결정의 병목지점이 없는 환경이 중요하다.

## Digital Transformation 을 위해 기업 내 모든 요소를 디지털화 하는 기술적 접근보다 오픈소스의 문화에 공감하고,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표.